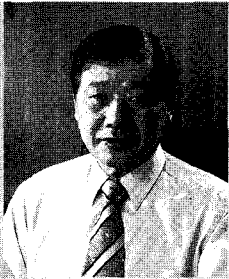


미래지향적 ·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성장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한 고객 만족



이 종 상
(주)한진P&C 회장

산업의 발달과 환경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산업의 발달만을 생각한다면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만을 주장하고자 하면 모든 산업이 정체를 보일 것이다. 때문에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늘만이 아닌 앞으로도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포장 분야 또한 환경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어 더욱더 신경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의 제품 생산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

충남 공주(정안농공단지)에 위치한 (주)한진P&C 공주공장이 지난 4월 지역 최초로 환경부 지정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종상 회장은 “그동안 공주공장과 서울 본사 공장에서 용제회수장치 등을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단순한 오염 방지의 차원을 넘어 오염물질의 제거와 회수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환경 기술을 도입해 적용함으로써 환경의 무해화와 자원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사 설립과 성장

한진 P&C는 1971년 한진인쇄공사로 설립돼 판지상자 및, 통기성 필름, 스트레치 필름 등 기능성 필름 생산을 하고 있다.

1996년 자체에서 개발한 통기성필름 원료의 키파운



▲ (주)한진P&C의 신축공장 조감도

딩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거래처인 유한킴벌리와 대한필프 등 수요처 확보를 기반으로 하여 공주 제 1공장에 건물을 증축하고 생산 설비를 완료하여 1996년 7월부터는 통기성필름의 본격적인 매출을 실현했다.

1998년 12월에는 공주 제 1공장에 인접한 제2공장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통기성필름을 통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인쇄 및 화학제품 생산업체로서의 의미와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상호를 한진피앤씨 (Hanjin

P&C)로 변경하였다.

한진P&C의 P는 Printing을 C는 Chemical을 뜻하며 인쇄제품 및 화학제품의 생산업체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연구개발과 고객만족을 통해 보다 나은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진 P&C는 지난 1999년에는 노사협력우량기업으로 지정(노동부)되었고 근로자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표창 수상,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2000년 6월에는 기술평가 기업으로 벤처등록을 완료한 당사는 공주 제 3공장을 매입 제 3공장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생산설비의 추가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대한민국 우수공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외적인 안정적인 체제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HanJinP&C

이와 함께 인쇄업계에서 가장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 눈을 돌려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주)한진P&C 본사와 공주 공장은 ISO9001과 14001 인증을 통해 품질 경영과 환경 경영을 이룩하고 있으며 제품의 전과정평가는 물론 기저귀

커버의 부분합지, 생리대 포장지인 원터치필름을 개발, 환경을 고려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상 회장은 “그간 환경을 고려한 제품 생산에 역점을 둔 한진은 오염방지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제거와 회수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환경 기술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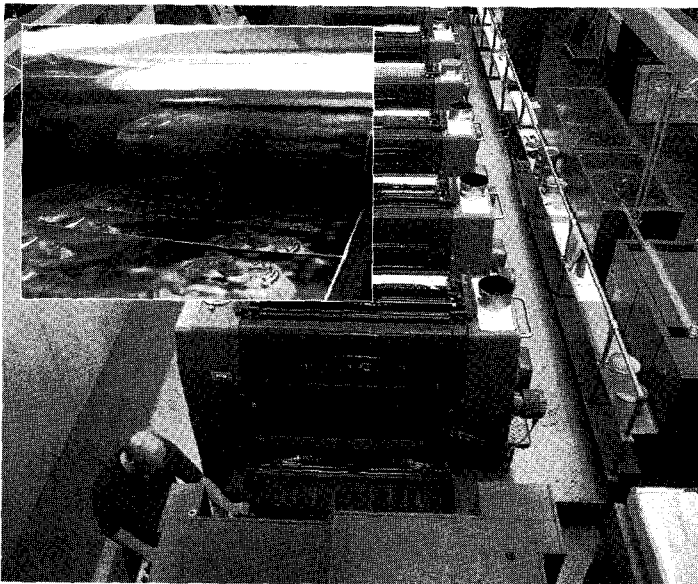
대한 환경경영보고서를 발간해 동종 업계에 공개해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으로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부 안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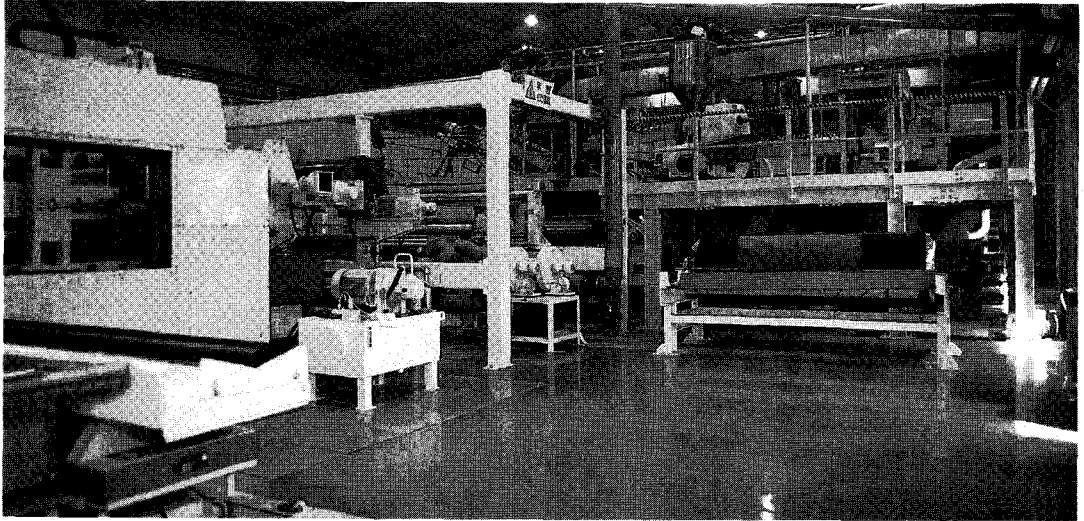
한진P&C는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되고자 내부적으로 임직원에게 최적의 작업환경을, 외부적으로는 고객 만족을 꾀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상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는 말 그대로 이상이 될 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열린 경영을 통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내·외부 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직원이 있기에 한진P&C가 있는 것이고, 고객이 있기



▲ (주)한진P&C의 인쇄 생산 현장



▲ (주)한진P&C 공주공장의 청결한 생산 현장

에 한진P&C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 회장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작업복을 입고 직접 생산 현장에 참여했다고 한다. 흔히들 직급이 높아질수록 생산현장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사무실에서 보고와 결재를 통해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기업내에서는 상하관계는 없으며 모든 임직원이 한진P&C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직접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의 에로사항을 몸소 느끼

게 되어 작업환경 개선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공모자금 이상의 자금을 자동화시설에 투자해 생산현장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편안한 작업터를 제공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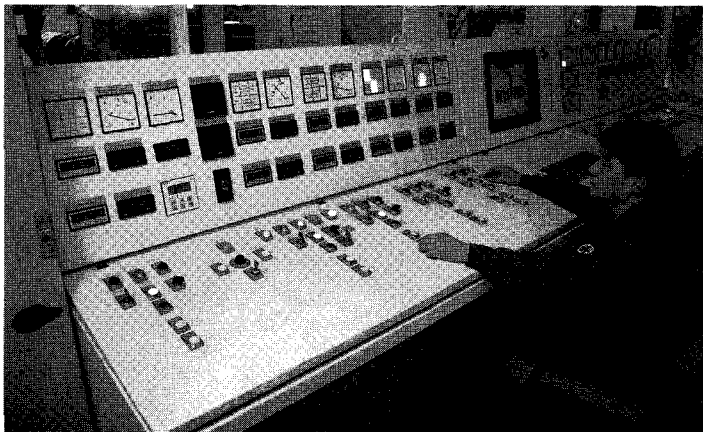
한진P&C는 지난 10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주관한 “정보화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 에스아이코리아에 의뢰하여 중견기업에서처럼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재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도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인 인쇄업이 경영정보화와 생산정보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 이 회장은 “인쇄분야가 3D업종으로 인식돼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데다 해외 인쇄물이 인건비가 싼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생산인력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절감된 생산비용은 신규산업을 위한 연



▲ 전공정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구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회사의 지속적인 정보화 노력에 작게는 업무 효율화와 작업시간 단축 등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경영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변모하는 거래처와의 수주관계 개선, 기업의 신뢰를 요구하는 주주 등 다양한 욕구만족에 대비하는 전력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창적인 기술로 최고의 제품 생산

한진P&C는 통기성 필름을 생산해오며 여성생리대 포장용 원터치 필름을 개발해 선보

인 바 있다.

이 원터치 필름은 기존의 접착 성분과 분리되지 않아 전량 수입되는 '이형지'라는 특수 코팅종이를 포장필름에 붙여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부직포에 실리콘 코팅재를 라미네이팅해 만든 것이다.

이 회장은 "한진P&C가 선보인 원터치 필름은 전량 수입되던 이형지를 사용하지 않아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충남 공주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춰 대만,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럽시장으로 확대하고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 P&C가 생산하고 있는 통기성필름은 아기기지귀

용, 여성생리대용 등 생활 속 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생필품의 중간재로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및 아시아, 중국, 대만 등지로의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그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의 공급시설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고급화와 기능화를 위해 과감한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폭넓게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한진 P&C의 스트레치필름은 각종 파레트 포장 및 제품보호 기능, 물류이동, 보관, 포장방법 개선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한진 P&C는 그동안의 통기성필름생산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과 독일의 최신전자동 다층 압출 생산설비로 보다 높은 품질 수준의 스트레치 필름을 "가드랩"이란 상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품질의 우수성을 Q마크를 통하

여 인증받고 있습니다.

한진 P&C의 가드랩 스트레치필름은 스트레치필름의 필요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신장율, 뛰어난 투명성과 접착성을 강화시켰다.

한진P&C의 또 하나의 생산품인 판지상자는 전체산업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중간재 제품으로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포장의 역할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제품이다.

판지상자는 다양한 판지를 원재료로 하여 인쇄, 코팅, 톱슨, 접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다양한 형태의 제품생산이 가능하여 산업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고 중간재 제품으로써 100% 주문생산을 하고 있어 재고부담이 없는 산업이며, 별개의 유통시장이 없는 산업입니다.

이 외에도 한진 P&C는 최신의 인쇄기와 축적된 인쇄기술, 노하우를 종합하여 우수한 인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진P&C는 지난 2001년 11월 자체 부설연구소를 설립

해 시대 상황에 맞는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5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신기술 개발은 물론 기존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12건의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연구소는 체계적 연구개발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연구 개발은 물론 대외 환경에 신속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 대규모 공장 증설완료

2003년 5월에 본사 사옥 및 자동화 인쇄 공장의 준공으로 기계설비의 최첨단화로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화의 극대화했다.

지난해초 코스닥시장 등록과 함께 확보한 1백60여억원의 공모자금을 모두 생산시설(서울과 충남 공주 공장)에 투자, 이달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상 회장은 "특히 8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통기성 필름 부문에서 국내외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매출은 40% 이상 증가한 8백억원선, 순이익은 70억~80억원으로 증가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04년 회계연도에는 매출 1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달 2002년 사업년도가 끝나는 한진P&C는 올해 소액주주 배당금을 액면가(5백원) 대비 30%로 작년 보다 50%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한진 P&C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에게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차등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주주증시 경영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이익의 30%를 주주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단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3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한진P&C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 없는 신소재개발 등의 R&D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포장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길 기대해본다. ☞

권해진 기자